

##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 발전전략적 접근

김근식\*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을 설명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이른바 '발전전략적 접근'의 설명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저발전국가에서의 신속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추격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변화과정을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단순히 산업화를 위한 노선으로서의 경제정책만을 발전전략의 내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근대화로의 동원을 위한 사회조직 원리로서의 정치체제, 동원을 위한 정당화 기제로서의 이데올로기 내용까지를 동일하게 발전전략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로써 발전전략적 접근은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포괄하는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르면 북한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도 발전전략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북한의 체제특성과 위기의 근원을 발전전략의 내용에서 구하고 아울러 향후 체제변화의 가능성과 전망도 발전전략의 변화와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발전전략의 채택과 실천과정이 북한 사회주의의 체제특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고 마찬가지로 발전전략의 변화와 수정의 모색과정이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과정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사회주의의 형성과정과 체제특성 그리고 변화전망을 발전전략적 접근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그간

---

\*아태평화재단 연구위원. 전공분야는 북한정치이다. 주요저서로 "북한체제 변화론: 가능성과 제약성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권 1호, 1999년, "90년대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제한성,"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년 6월호, "사회주의 시민사회론과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가능성,"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권 3호, 1994년 등이 있다(연락처: 02)322-0291, Fax) 02-322-4495, E-mail: kimosung@hanmail.net).

의 구체적 사실들이(facts) 발전전략적 접근에 의해 하나의 일관된 설명틀로 재구성될(reconstruct)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북한에서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형성된 시기는 1950년대였다. 1950년대라는 한국전쟁 이후 대내외적 위기상황(crisis)에서 북한은 신속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발전전략의 형성을 추구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발전전략은 경제노선 뿐 아니라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 내용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존재했고 그 결과로 나타난 발전전략의 형성과정은 결국 자립적민족경제노선, 수령제,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사회주의의 체제원리(system principles)를 결과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1990년대 경제체제와 사회주의붕괴라는 대내외적 위기상황(crisis)에서 북한은 경제발전과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전전략의 변화와 수정을 모색하고 있고 이는 지금의 나진선봉 등 대외개방과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라는 축적방식의 일정한 변화, 장마당 등 시장원리의 확산에서 그 단초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의 기미말고도 이를 거부하는 기존 발전전략의 온존유지도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차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립적민족경제노선은 고수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북한발전전략의 결과물인 수령제도는 1990년대에 그대로 유지계승되었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도 북한은 1990년대에 체제위기 극복과 체제안정 도모를 위한 정당화기제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론'과 '붉은기철학'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지배력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1990년대 위기상황이 제공하는 변화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발전전략은 본질적 변화를 당분간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기존의 구조화된 발전전략이 체제의 제도적 힘으로 작용하여 급속한 변화를 장애하고 제한하는 이른바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물론 199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 변화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 위기상황이 제공하는 변화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발전전략의 변화는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오히려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은 결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주장이나 북한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주관적 의지의 피력이 아니라 북한 역시 하나의 실존하는 재개발 국가의 발전정권(regime of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은 기존 북한연구의 한계로 지목되던 과거 중심의 역사서술과 현재 중심의 상황분석을 종합적으로 결합시켜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역사와 현실을 하나의 설명틀로 접목시키고 아울러 과거 북한연구가 정치, 경제 혹은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에만 한정되었던 연구영역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

치, 경제, 이데올로기를 통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1. 문제의 제기: 역사와 현실, 그리고 이론

북한을 연구하는 데서 연구방법의 빈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sup>1)</sup> 북한을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냉전적 시각'이 한 때 북한 연구를 지배했었고 이론이 빠진 '역사서술' 중심의 자료분석이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결여된 현실중심의 '상황분석'도 여전히 우리의 북한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연구방법의 빈곤은 북한연구를 이른바 '방법론적 예외주의' (methodological exceptionalism) 혹은 '이론적 고립주의' (theoretical isolationism)<sup>2)</sup>로 남게 했다. 후자는 북한연구의 방법론적 부재를 '자료의 제한'으로 이유 달기도 하지만 자료 제한은 연구의 불편함을 야기할지언정 연구방법과 이론화작업의 불가능을 결코하지는 않는다.<sup>3)</sup>

물론 자료접근의 제한성과 현지조사의 불가능성이라는 북한연구의 본래 한계를 고려할 때, 북한의 역사에 대한 실사구시적 탐구나<sup>4)</sup> 북한의 현실상황에 대한 사실

- 1) 그동안 북한연구에서는 '내재적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의 연구방법이라 할 수 없다. 연구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인 인식방법으로서의 내재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북한사회에 대한 모든 선형적 가치판단의 중지'라는 애초의 의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즉 내재적이라는 의미가 외재적(external)의 반대가 아니라 '선형적'과 대칭되는 '경험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동의하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인식방법'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 2) 이같은 개념은 서구의 초기 사회주의 연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Alfred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15. 후자는 Robert 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 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 No. 2 (June, 1961), p. 281 참조.
- 3) 오히려 부단한 이론화 노력이 자료의 부족을 보충하며 때로는 이론이 자료의 산출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Samuel S. Kim, "Research on Korean Communism: Promise versus Performance," *World Politics*, Vol. 32, No. 2 (January, 1980), p. 289.
- 4) 지난 시기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1차 자료의 탐구를 통해 북한사회주의 발전사를 역사적 시각에서 충실히 분석해낸 연구들은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서주석 옮김,

적 분석은<sup>5)</sup>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연구는 역사와 현실의 영역에서 '이론'의 영역으로 도약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역사와 현실에 대한 사실(facts)들이 정치학적 의미와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일관된 접근법에 의해 재구성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론화와 방법론의 모색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북한바로알기' 운동으로 과거의 냉전적 시각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북한체제를 일관된 설명들에 의해 분석해내는 '접근법'의 정착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북한연구의 핵심이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의 형성과정과 그 체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적잖은 기존 연구는 역사사실의 정리 혹은 현재상황의 분석에만 치우쳐 있음으로써 역사와 현실을 동시에 포괄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역사'의 과잉과 '현실'의 과잉은 앞으로 과학적 북한연구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며 반드시 건너야 할 강임에 틀림없다.

북한사회주의를 '수령제'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려는 최근의 연구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sup>6)</sup> 사회주의의 일반원리인 '일당지배'와도 전혀 다른 북한의 수령제가 체제특성의 하나로 간주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Robert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The Movement*(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2, 3》(서울: 돌베개, 1986, 1987); Il Pyong Kim,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New York: Praeger, 1975);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서울: 한울, 1987); Hak Soon Paik,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 東京大博士學位論文, 1995);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류길재,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등을 들 수 있다.

- 5) 특히 남북분단의 조건으로 인해 북한연구가 통일이라는 현실적 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인식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현실상황의 사실적 분석은 여전히 유의미성을 갖는다.
- 6) 북한체제의 특성으로 수령제 또는 유일지도체제를 규정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鐸木昌之,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東京: 東京大出版會, 1992);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최성, 《수령체제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메카니즘에 관한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등이 있다.

수령제라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차원의 역사서술에만 치우친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7)</sup> 북한연구의 영역을 경제 차원으로 확대시킨 연구들 역시 북한사회주의의 설명에서 그간의 공백을 메꿔주는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역사적 서술에 머물거나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 등 현실의 분석에만 한정되고 있다.<sup>8)</sup>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연구결과들도 일관된 설명들보다는 단순한 현실적 상황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제개혁이 필연적이라는 단선적 분석과 경제위기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정치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경제중심의 논리,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정치와 사상의 우위 때문에 경제정책이 변할지언정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모두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체계적 분석력이 떨어진다.

결국 북한사회주의의 체제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에는 여전히 분석의 제한성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북한 연구 혹은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설명은 그 체제적 특성이 무엇인가에만,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사실서술에만 머물러 있었고 사회주의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형성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하나의 설명들로 종합적으로 분석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서도 체제특성과의 연관성은 결여된 채 변화의 일면을 현상적으로 파악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제 북한연구는 과거에 대한 역사탐구적 사실복원의 단계를 지나, 그리고 현재에 대한 상황판단적 설명단계를 지나 북한의 歷史와 現實을 접목하고 관통하는 하나의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sup>9)</sup> 즉 북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7) 이와 관련해 최근 김연철은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을 1950년대 북한의 산업화과정에서 공장이라는 제도에 주목하여 경험적으로 추적한 바 있다. 이는 과거 정치사 중심의 수령제 형성 과정을 사회경제적 토대와 관련지어 분석한 일진전의 의미를 갖는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8) 북한경제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 나남, 1992); Eui-gak Hwang, *The Korean Economies: A Comparison of North and South*(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Soo-young Choi,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Ph. 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1991) 참조.

9) 이미 북한사회주의의 특성을 개념화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은 존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체제는

분석의 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아울러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서도 그 틀은 동일하게 설명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와 현재, 역사와 현실을 '설명가능한 이론'으로 연결해주는 하나의 접근법이 필요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사회주의에 대한 기존의 접근법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북한연구방법론은 사회주의체제 일반에 대한 접근법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고유한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현존사회주의 국가임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일반에 대한 체계적 분석작업은 그만큼 사전적 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북한연구방법론이 대부분 기존 사회주의 연구방법론을 도입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음도 여기에서 연유한 바가 컸다. 따라서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분석작업은 가장 적실성 있는 사회주의 연구방법론에 의거함으로써만 그 올바른 전제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보여진 '과학의 빈곤'이 '방법의 빈곤'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연구방법론으로는 전체주의적 접근법, 맑스주의적 접근법, 근대화론적 접근법, 제도론적 접근법을 들 수 있다.

---

'전체주의'로 규정되기도 하고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로 설명되기도 하며 국가사회주의의 1차구조물에 부수적 2차물이 덧붙여진 '유격대국가'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성격규명을 위한 이들 연구는 총체성보다는 일면성에 머물러 있고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태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는 정치적 특성을 체제일반의 성격으로 확대해석했다는 점에서 정치중심의 논의에 머물고 있다. 이들 각각의 논의에 대해서는 Gavan McCormac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March/April, 1993); Bruce Cu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1982/1983); 부르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편, 《한국현대사 연구 1》(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Bruce Cumin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in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와다하루끼(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 1993년 10월호; 와다 하루끼, "유격대 국가 북한의 성립과 전개," 《극동문제》, 1993년 12월호 참조.

우선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속성을 이른바 '광범위한 국가권력'(broad extent of state power)에 의한 전사회적 통제시스템'으로 분석하는 이론모델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체제의 개념적 증후군으로 '사회 전구성원을 구속하는 공식이데올로기, 일인에 의해 지배되는 단일대중정당, 폭력적 경찰통제제도, 매스컴의 독점, 효율적 무기수단의 국가독점, 전체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 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10)</sup> 결국 전체주의접근법의 가장 핵심은 '당국가의 전사회에 대한 효율적 통제'이고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사회(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배' 테제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체주의 접근법은 지금까지 빈번하게 그 한계가 비판되었는 바, 주된 약점으로는 위 특징들이 사회주의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현상이 나타나는 권위주의체제나 독재체제와의 개념적 상이성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위 특징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사회주의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sup>11)</sup> 결국 전체주의 접근법은 실제로 존재하는 모델로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이념형적인 설명으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의 사회주의권 변화를 목도하면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냉전적 색안경에 의한 체제대결적 가치판단의 전형으로 평가되었고 정작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가능성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靜態的 개념으로 비판받았다.

맑스주의적 접근법은 맑스주의 본래의 사회주의 이념과 가치에 의해 현실사회주의 국가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이론틀이다. 따라서 이는 '이념형으로서의 사회주의'를 상정하고 현실사회주의의 이에 대한 정합성 여부를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진정한 사회주의'(true socialism)의 주요 준거를 설정하고 이의 일탈여부 혹은 이의 일치정도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분석의 핵심척도로 사용하는 이 접근법은 따라서 '규범적 분석'<sup>12)</sup>의 전형이다. 이 접근법에 따른 현존사회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으로는 '혁명이후 사회'<sup>13)</sup>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론'<sup>14)</sup> 그

10) Carl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27.

11) Stephen White, John Gardner, George Schopflin and Tony Saich, *Communist and Post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 3rd ed.(London: Macmillan, 1990), pp. 22-23.

12) 사회주의에 대한 규범적 접근과 실증적 접근에 대해서는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9-17 참조.

13) Paul Sweezy, *Post-Revolutionary Society*(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80); Paul Sweezy, *After Capitalism-*

리고 '타락한 노동자국가'<sup>15)</sup>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소유관계와 다양한 사회집단 특히 노동자계급의 이익에 주된 관심을 보였지만 그 사회의 정치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고 특히 규범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즉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 존재하기도 힘든 이상적 사회주의의 개념으로 현실 사회주의를 대치시킴으로써 다양한 역사적 경로와 조건, 상이한 발전의 결과 등을 무리하게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위의 접근법이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시된 것이라면 근대화론적 접근법과 제도론적 접근법은 기존 서구체제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 제출된 것을 사회주의에도 확대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근대화론적 접근법은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사회주의의 동태적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데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즉 사회주의 역시도 경제발전이 체제변화의 주요인이라는 전제하에 경제성장에 따른 기능적 분화와 사회적 복잡성의 증대가 자동적으로 정치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상정하는 점에서 서구의 근대화론의 연장선에 있다.<sup>16)</sup> 그러나 이 접근법 역시 전체주의와 맑스레닌주의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체제변동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문제를 경제중심의 테제로 상정하고 '정치에 대한 경제 우위'의 인식을 온존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비교의 기준을 서구중심적 단선적 모델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What?, Socialism on the Threshold of the Twenty-First Century*(London: Verso, 1985).

- 14) 이에 대해서는 Tony Cliff, *State Capitalism in Russia*(London: Pluto Press, 1974); Chris Harmon, "From Trotsky to State Capitalism: A Review of Beyond Perestroika," *International Socialism*, No. 47(Summer, 1990); Charles Bettelheim, *Economic Calculation and Forms of Property*(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5) 참조. 클리프와 하먼은 트로츠키적 관점에서, 프랑스의 구조주의 맑시스트인 베틀렘은 소유관계와 소유형태의 측면에서 각각 러시아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였다.
- 15) Ernest Mandel, "A Theory Which Has Not Withstood the Test of Facts," *International Socialism*, No. 49(Winter, 1990); Ernest Mandel, "The Impasse of Schematic Dogmatism," *International Socialism*, No. 56(Autumn, 1992).
- 16) 사회주의를 근대화와 연관시켜 분석한 것으로는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Mark Field, e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London: Sage, 1976); Charles Wilber, *The Soviet Model and Underdeveloped Countries*(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참조.



제도론적 접근법은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사회주의 사회를 '원자화된 시민과 동결된 사회 그리고 불변의 국가'로 가정하고 있는 데서 제한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사회주의가 재생산되는 제도적 과정과 제도의 내용에 주목하여 사회경제적 제도와 그 안에서의 시민사회와 사회집단의 역동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7)</sup> 즉 제도라는 가시적인 체제의 운영원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개별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는가에 강조점을 둬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 무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매개되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천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발전과 위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sup>18)</sup> 그러나 제도론적 접근 역시 사회주의체제의 제도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제도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적 차원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거시적 차원의 사회주의의 형성과 변화에는 이론적 힘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위의 세 접근법들은 각자의 장점과 이론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 접근법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론적인 분석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사회주의에서 국가권력의 광범위한 성격을, 맑스주의적 접근법은 혁명의 당위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적 지향을, 근대화론적 접근법은 경제발전과 체제변동의 상관관계를, 제도론적 접근법은 국가와 이념이 아닌 제도의 역동성과 구체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사회주의의 형성과 발전 및 변화를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 차원 모두를 포괄하면서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아직 적실한 접근법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17) Victor Nee and David Stark, "Toward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State Socialism," in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1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사회주의분석에서의 탁월한 저작이라 할 수 있는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op. cit.* 역시 이 제도주의적 접근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3. 발전전략적 접근

#### 1) 사회주의: 저발전국가의 추격발전전략

애초에 사회주의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역사발전의 필연적 경로로 예견되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성장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면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 해방과 생산력 발전을 위한 객관적 발전경로로 제시되었다. 명백히 본래의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성숙한 자본주의의 계승자'로서 규정되었고 따라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 (march into socialism)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윤리적 우월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약속했던 사회주의는 정작 현실에서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저발전 국가에서 실현되었다. 사회주의 이행의 맑스주의적 법칙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오히려 사회주의 혁명의 추동력은 자본주의 발달이 아니라 식민지적 착취와 국가적 종속에서 나왔으며 저발전과 빈곤 그리고 낙후성으로부터의 해방이 사회주의의 매력으로 등장하였다.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저개발국가에서의 혁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다른 3세계 국가들과 함께 비교정치학의 영역에 통합되었다.

“공산주의 혁명은 분석적 목적을 위해 저개발 국가에서의 혁명이라는 맥락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 비교정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저발전국가의 혁명을 민족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는 구별 대신에 '근대화' (modernizing)라고 불리는 공통의 설명틀 (framework)에 위치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정치학자들은 소위 이념적인 분리선을 넘어 '발전을 위한 정치체제'의 유사성에 주목해야 했다”<sup>19)</sup>

바로 이러한 역사현실적 상황이 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의 전제가 된다. 즉 저발전국가의 발전모델로서 제3세계의 사회주의는 위치지워지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는 하나의 발전전략 유형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

19) John Kautsky, "Commu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Vol. 26, No. 1(March, 1967), pp. 14-17.

를 통해 저발전 국가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제3세계의 다른 ‘발전체제’와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주장되었다.<sup>20)</sup> 저개발국가에서 실현된 사회주의혁명 역시 지체와 후진성에 대한 반작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발전을 정치적 수단에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제3세계의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적으로 강요된 발전(politically forced development)을 담당하는 발전정권(regime of development)이 된다는 것이다.<sup>21)</sup>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쟁하스는 현존하는 사회주의를 발전사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주변화 압력’을 벗어나기 위한 자주적 발전전략의 하나로 사회주의를 규정하여 ‘단절적-국가사회주의적’ 전략을 개념화했다.<sup>22)</sup>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고 결정적인 사회동력이 되는 토대는 풍요가 아니라 결핍’이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실패한 조건에서 더 대안이 없는 발전정책이며 가속화된 추격발전을 그 과제로 하는 것’이었다.<sup>23)</sup> 사회주의는 제3세계 국가에서 특징적이고(distinctive) 실현가능한(viable) 발전양식의 하나로 규정된 것이다.<sup>24)</sup>

뒤떨어진 사회가 정치경제적 수단을 통해 발전한 사회를 따라잡으려는 이른바 ‘추격발전’(catching up)은 현실 사회주의가 추구한 당면목표의 주요지점이었다. 사회주의는 저발전 국가가 지체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이

20) 이에 대해서는 John Kautsky, “Comparative Communism versus Comparative Politic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6, No, 1-2(Spring-Summer, 1973), pp. 135-170 참조.

21)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5.

22) 이에 대해서는 D. Senghass, 한상진, 유팔무 옮김,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5장을 참조. 쟁하스는 6가지 추격발전전략으로 1) 단절적-내생적 발전 2) 연합적-수출지향적 발전 3) 연합적-단절적 발전 4) 단절적-국가자본주의적 발전 5) 단절적-국가사회주의적 발전 6) 신흥공업국에서의 추격발전 등을 분류하였고 북한의 발전모델은 단절적-국가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의 하나로 설명되었다.

23) Dieter Senghass, “Socialism i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Economics, Tubingen*, Vol, 23, 1981, p. 99.

24) Gordon White,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An Overview,” in Gordon White, Robin Murray and Christine White,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3), p. 9.

며 맑스레닌주의 역시 후진적 국가에서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었다.<sup>25)</sup> 사회주의로의 이행 이후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후진성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주의를 '추격발전'의 전략으로 규정하는 토대가 되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추월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된 셈이다.<sup>26)</sup>

결국 발전전략적 접근법은 제3세계 혹은 저발전국가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모색되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다.<sup>27)</sup> 따라서 '발전전략'의 관점에서는 사회주의적 경로 역시 이념적 지향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가의 근대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도 기능한다고 본다.<sup>28)</sup> 2차대전 이후 신생국에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문제는 결국 역사적 불가피성보다는 발전전략의 선택이었던 셈이다.<sup>29)</sup>

## 2) 발전전략의 내용: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차원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는 혁명성공 이후 무계급사회 실현 등 이념적 목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의 사회발전의 성과 특히 경제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했다. 이는 곧 유포피아와 근대화라는 목표의 이중성(dualism of

25) Michael Ellman, *Socialist Planning*, 2nd ed.(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 328.

26) Wlodzimierz Brus and Kazimierz Laski,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Oxford: Clarendon Press, 1989), pp. 22-35.

27) 제3세계의 발전론적 관점은 일반적으로 '국가주도의 사회발전과 사회변화'를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이트는 제3세계 발전국가를 '국가자본주의' '중간국가' '국가사회주의'로 구분하여 사회주의적 발전양식을 택한 나라의 산업화과정을 개괄하고 그 딜레마를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Gordon White, "Developmental States and Socialist Industrialization in the Third World," in Raphael Kaplinsky ed.,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in the 1980s: Open Economies in a Closed World*(London: Frank Cass, 1984), pp. 97-120 참고.

28) 이에 대해서는 John Kautsky, *Communism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New York: John Wiley & Sons, 1968);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Gordon White, Robin Murray, and Christine White,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3) 등을 참고.

29) Irving Horowitz, *Beyond Empire and Revolution*(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77.

goals)을 의미하게 되고<sup>30)</sup>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후진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동원체제(mobilization system)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적 동원체제는 본질적으로 경제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전사회적 동원체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자원을 총동원하고자 하는 발전전략은 경제적 동원 말고도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적 동원과 사상적 동원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로써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의 제 측면에 나름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반영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회주의의 발전전략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 대표적 범주로는 경제와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이는 저발전 국가가 신속한 기간 안에 경제발전 혹은 근대화를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추동해내는 전사회적 동원의 세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우선 경제발전전략은 여하히 産業化(industrialization)를 이루어 낼 것인가이다. 즉 산업화의 노선인 것이다. 발전전략으로서의 경제적 차원은 저발전 국가의 사회주의가 고민해야 할 가장 일차적인 것으로서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 방법들 즉 소유관계, 축적방식, 대외경제관계, 인센티브, 자원배분 등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경제발전정책 및 경제관리와 운영체계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sup>31)</sup> 이는 물론 사회주의 일반 원칙의 수용과 신속한 근대화라는 이중적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적실하고 효율적인 전략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볼셰비키 혁명 이후 소련이 제시했던 이른바 '소비에트 근대화 전략'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경제적 발전전략의 원형으로 꼽힌다. 즉 '대규모 투자를 통한 고속성장 산업화'와 '성장의 엔진에 치중하는 선택적 불균형 발전' '이윤법칙을 초월하는 자원의 산출극대화' 등은 1930년대 소련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효과적인 경제발전전략이었던 것이다.<sup>32)</sup> 이들 경제발전전략이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원리를 주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이다.

발전전략의 정치적 차원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組織化(organization)를 여하

30)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op. cit.*, pp. 50-54.

31) 소련과 중국의 발전전략을 비교한 제임슨과 윌버의 연구 역시 산업화와 관련하여 이같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Kenneth Jameson and Charles Wilber, "Socialism and Development: Editors' Introduction," *World Development*, Vol, 9, No, 9-10 (September-October, 1981), pp. 806-810.

32) Brus and Laski, *op. cit.*, pp. 24-26.

히 할 것인가이다. 즉 정치체제와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근대화로의 대중동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치구조를 나름대로 채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다양한 집단의 자유로운 경쟁과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발생적 정치가 허용되지 않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 상호결합하는 단일차원의 정치구조와 정치과정을 상정한다. 효과적 동원을 위한 조직화원리로서의 유일조직적 체제는<sup>33)</sup>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전략의 한 측면이 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로서의 사회주의는 일사불란한 동원의 조직화를 위해 고도의 관료화를 결과한다. 이 같은 당기관과 국가기관의 유일조직적 관료화를 통해 사회주의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중동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결정적 도약단계에서 사회주의국가는 '경성국가' (strong state)를 요구할 수 밖에 없고 당은 국가의 핵인 것이다.<sup>34)</sup> 이같은 당우위국가와 당독재 정치구조 역시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발전전략의 이데올로기 차원은 근대화를 위한 正當化(legitimation)를 여하히 할 것인가이다. 즉 대중동원의 사상적 정당화기제인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보는 눈이다.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발전에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비단 경제노선과 정치체제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부분에서 지속적인 혁명이념의 강조를 통해 대중동원의 정당화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특히 사회주의와 같은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진 사회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공식적으로 맑스레닌주의라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주의에서는 대중들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에 동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재의 어려움과 고됨을 미래의 지향으로 상쇄시키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이 분명 발전 전략으로서 빠트릴 수 없는 긴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이

33) 릭비는 공산당에 의한 단일한 명령구조를 '유일조직적 사회'로 개념화하고 이것의 지배적 경향성은 베버가 언급한 자본주의사회의 관료와 달리 '목표달성형'이며 명령의 정당성도 서구의 공식적, 법적 합리성의 관점보다는 '목표합리성'의 관점에서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T. Rigby, "Introduction: Political Legitimacy, Weber and Communist Mono-Organizational Systems," in T. Rigby and Ferenc Feher, eds.,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 1-18 참조.

34) Gordon White,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An Overview," *op. cit.*, p. 28.

같은 정당화기제가 그 작동을 멈출 때 그것은 바로 '사멸한 운동정권' (extinct movement regime)이 되고 대중은 혁명이데올로기가 아닌 물질적 기제에 의해 행위동기를 갖게 된다.<sup>35)</sup>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측면은 분명 의미있는 것이 된다.

결국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를 위한 경제노선 뿐 아니라 대중동원을 위한 조직화로서의 정치체제 그리고 사상적 정당화로서의 이데올로기의 내용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적 특성이 형성되고 이후 그것이 변화발전하는 것을 논의할 때도 경제노선, 당구조, 이데올로기 등이 동시에 구명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sup>36)</sup>

이러한 발전전략의 내용들은 또한 개별 사회주의 국가의 고유한 체제특성이 형성되는 과정도 설명가능하게 한다. 개별 사회주의국가는 근대화 혹은 산업화라는 발전전략적 지향을 자체의 조건에 맞춰 추구하면서 그 특성을 형성해나가기 때문이다. 각국은 발전전략 형성과정에서 사회주의의 보편적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경제발전정도, 정치문화의 양태, 권력장악방식과 리더쉽 등의 변수에 의해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된다.<sup>37)</sup> 경제부분에서의 경우만 해도 생산수단의 사회화, 농업협동화, 축적의 방식, 경제관리체계, 세계체제와의 관련성 등에서 각국은 서로 다른 패턴과 방식, 속도와 결과를 나타내고 정치부문에서도 당독재와 당우위국가를 실현하면서도 그 구체적 양태와 방식에서는 상이점이 노정된다.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에서도 맑스레닌주의라는 이념적 공통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사회적 작동방식과 내용 그리고 그 결과 등은 개별적 특수성을 보이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발전전략적 접근법은 개별사회주의 체제의 사회주의 일반원칙 공유와 각국의 조건과

35)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중을 '운동'으로 동원하고 정당화시키는 이른바 '운동정권'에 대해서는 Robert 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 No. 2(June, 1961), pp. 281-289 참고.

36) 로웬탈은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소련과 중국, 유고를 비교하여 당내 엘리트구조와 정당구조 변화, 인센티브 등 경제정책의 변화, 위로부터의 혁명의 지속여부 등을 주요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op. cit.*, pp. 54-104.

37) 이는 찰머스 존슨이 사회주의정권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작동변수이다.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26-32.

상황에 따른 발전전략의 차별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만족스럽게 분석하는 잇점을 가지게 된다.

### 3)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 위기상황과 제도적 제약

발전전략적 접근이 사회주의 분석에서 이론적 설명력을 가지는 힘있는 분석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한 방법론으로 되기에 미흡하다. 개별 사회주의에서 실제 발전전략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역동성을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개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사회주의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의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위기개념(crisis)을 원용하고자 한다. 근대화와 사회주의 이념지향이라는 동시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전략은 어느 때나 어느 시기에서나 아무 조건없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핵심적 발전전략이 형성되고 또한 이후 그것이 변화하는 계기는 분명한 조건과 객관적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이를 충분히 일반화시켜 설명할 때 오히려 설명력은 증대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언급하는 위기의 개념은 대부분 국제정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바, 각 위기가 가지는 독특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조작적인 정의가 힘든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한 개념정의는 크게 2가지가 존재한다. 우선은 위기의 개념을 국제체계상의 급작스런 변화와 갈등으로 간주하는 체계적 접근이 있다. 여기에서 위기는 '체계 혹은 체제 일부분을 혼란시키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때문에 이러한 '체계위기'(system crisis)는 안정성을 해치는 '변화와 갈등'의 특징이 주요하게 강조된다.<sup>38)</sup>

또 다른 위기개념은 실제 정책결정자들의 상황인식, 대응과 관련한 것으로서 정책결정접근으로 불리운다.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이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책결정위기'(decision-making crisis)를 개념화하는 데는 몇 가지의 변수가 설정되는데, 위협과 시간과 놀람의 정도가 그것이다.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1) 정책결정자의 선차적 목표를 위협하고 2) 대응에

38) Oran Young, *The Intermediaries: Third Parties in International Crisi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10.



필요한 시간이 불충분하며 3) 그 상황으로 인해 정책결정자들이 (미리 예견했던 것이 아니라) 놀랐을 때 그것을 위기라고 개념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39)</sup>이같은 국제정치에서의 위기개념은 사회주의에서의 발전전략 형성과 변화의 계기를 설명하는 데 나름의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체계적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변화와 갈등구조는 사회주의국가의 '대내외적 체제위기' 즉 한 국가가 대외관계에서의 급작스런 변화와 동시에 대내적 차원에서의 기존체제의 안정성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경우로 확장해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책결정 접근'에서 강조하는 위기개념 역시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과 대응방식에서 비롯된 위기가 높은 수준의 위협과 긴박한 시간압력 그리고 예견치 못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적용시키면 상당한 적절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가 발전전략을 형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계기로서의 '위기'는 그 자체의 객관적 성격으로서 대내외적 상황의 심각함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책결정의 어려움이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내외적 위기의 정도와 이에 대한 기존정책의 대응의 어려움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위기를 일반화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른바 위기상황이 기존정책의 변화를 야기하는 역동적 계기가 된다고 봄으로써 '위기상황의 역동성' (dynamics of crisis)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sup>40)</sup>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의 '계기'로서 위기의 개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발전전략적 접근은 또한 형성된 발전전략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의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 접근법이 기실 근대화론과 이론적으로 상당히 인접해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근대화론은 경제성장과 정치변동을 필연적 자동보장관계로 상정하여 지나친 경제우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근대화론은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를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그후 정치발전과 체제변동의 설명에서는 경제적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가 이념적 목표에 대한 끊임없는 연

39) Charles Hermann, *Crises in Foreign Policy*(Indianapolis: Bobbs-Merrill, 1969), pp. 29-36.

40) 이에 대해서는 Hugh Hecl, "Conclusion: Policy Dynamics," Richard Rose, ed.,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A Comparative Analysis*(London: Sage, 1976), pp. 250-255.

성과 지향을 갖고 있는 점을 너무 간과했다고 비판받는다. 비록 혁명 이후 초기에는 경제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발전전략은 단순한 경제발전에 매몰되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지향과 특성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전략적 접근법이 근대화론적 관점에 경도된 나머지 '발전전략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경제발전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체제변동을 야기한다는 인식에 기초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오히려 현실에서 개별 사회주의의 발전전략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데는 경제발전에 의한 자동적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이미 발전전략으로 형성된 제반의 제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제도적 제약'에 상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sup>41)</sup> 즉 제도적 과정과 제도적 제약의 연관성 속에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전전략의 변화를 장애하는 제도는 "정치 및 경제의 각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공적 규범, 절차, 일반적 관행"<sup>42)</sup>이며 나아가 "정부기구의 고유한 특성에서부터 보다 포괄적인 국가구조, 국가의 규범적 사회질서"<sup>43)</sup>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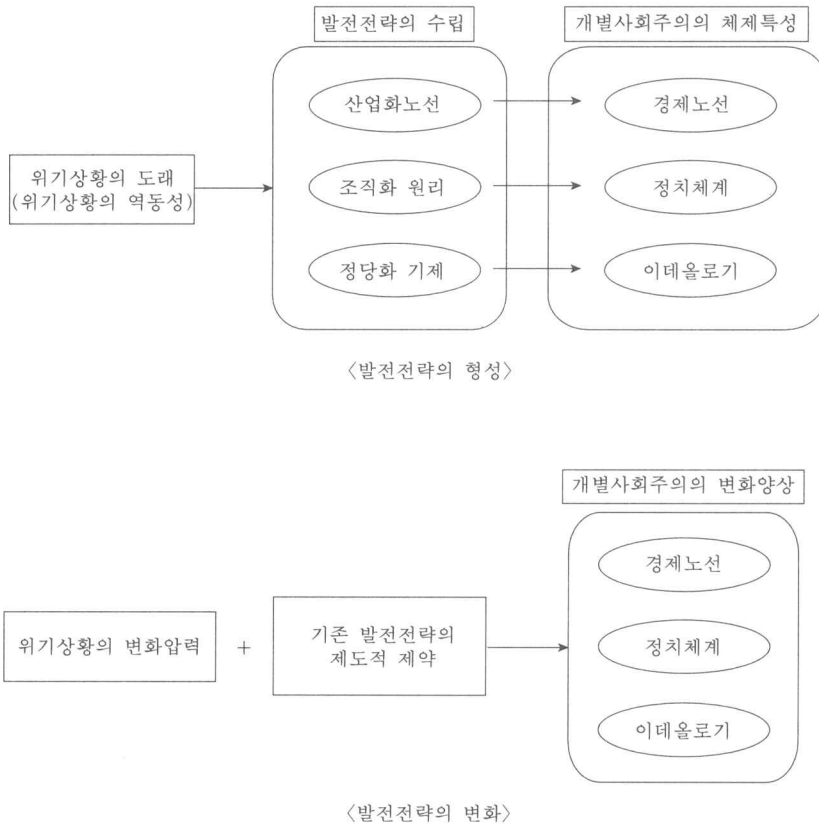
41) 여기서 제도적 제약 개념은 신제도주의로부터 원용한 것이다. 이른바 '신제도주의'는 구조나 제도의 역할이 단순히 어둠상자(blackbox)나 외생적 변수로만 취급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제도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파악하여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제도주의는 크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로 다시 구분된다. 전자는 기존의 합리적 선택이론의 패러다임이 제도적 분석을 포괄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제도가 개인과 행위자들의 선택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몫은 합리적 개인에게 있다. 후자는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제도적 제약 안에서 개인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제한된 선택을 하게 됨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의해 행위가 규정되는 측면을 보다 강조한다. 본 논문에 유용한 접근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이호철, "사회, 국가, 그리고 제도-정치경제의 제도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정치》, 9권 2호, 1993, 235-256쪽을 참고할 것.

42) Peter Hall,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vention in Britain and France*(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 19.

43) John Ikenbery,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John Ikenbery, David Lake, and Michael Mastanduno, eds., *The State and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 p. 226.

지를 일컫는다. 이에 따른다면 발전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노선과 정치체제 그리고 이데올로기 내용은 이른바 '제도의 힘'을 가지는 것으로 포함될 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에서 '제도적 제약'의 개념을 원용하는 것은 분명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주의체제에서 기존의 발전전략이 급격히 변화하기는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발전전략은 위기상황에서의 정책변화를 강요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변화과정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기존 발전전략의 제요소들이 형성하고 있는 '제도적 제약'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설명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구조



〈그림 1〉 설명틀: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

화된 발전전략은 공고하게 지속되는 제도의 힘을 가지게 되고 어떤 변화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제도적 틀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 변화에 대한 제약성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도적 제약 개념은 발전전략의 변화과정에서 기존의 제도적 틀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정치과정이 형성되고 정책적 결과가 산출된다는 것에 주목한다. 정치행위자들의 역할과 이들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바로 이점에서 발전전략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그 제약성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에 '제도적 제약' 개념을 원용한다면 구체적인 정책변화의 분석에서 '구조와 행위자'의 이론적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석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법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4. 북한발전전략의 설명을 위하여

##### 1) 기존 연구 검토

북한의 발전전략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오히려 국내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미 서방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을 이른바 '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의 범주에 포함시켜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쟁하스는 북한의 발전전략을 이른바 '단절적-국가사회주의적 발전전략'의 하나로 설명하면서 후발산업화를 추진해야 하는 저발전국가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불평등한 분업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발전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sup>44)</sup> 그리핀 역시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사회주의 모델 중 '자립전략'으로 규정하고 북한에서의 자본형성이 주로 내부적으로 동원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간크기의 국가에서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예'로 평가하였다.<sup>45)</sup>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북한만이 아니라 자

44) 디이터 쟁하스 지음, 한상진 유필무 옮김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209-254쪽.

본주의를 포함한 여타 발전전략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탓에 북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못하고 개괄적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또한 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를 역동성있게 그려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북한의 발전전략을 '자립(self-reliance)'으로 특징짓고 그것의 역사적 배경과 성과 등을 설명한 연구로는 브룬, 허쉬와 화이트, 할리데이, 포스터-카터 등이 있다. 브룬, 허쉬는 두달간의 현지방문을 토대로 북한의 전후 경제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실제적 성과와 이론적 의의의 측면으로 분석하였는 바, 특히 전후 재건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과 사회주의적 이행의 문제 그리고 경제관리체계에서의 독자성에 주목하였다.<sup>46)</sup> 포스터-카터는 주체강조와 천리마운동 등 내부의 자원동원에 주력한 북한의 자력갱생원칙을 경제발전의 주요한 특징으로 평가하였다.<sup>47)</sup> 화이트와 할리데이는 1980년대까지의 북한의 경제발전을 이른바 '주체의 전략'으로 설명하고 이의 경제발전에서의 성과와 정치체제에서의 한계를 동시에 분석했다.<sup>48)</sup>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북한의 발전전략을 주로 경제적 차원에만 치중해서 분석했다는 점과 1980년대 이후의 최근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설명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서방에서 축적된 이상의 연구들은 북한사회주의를 일국의 경제발전전략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것의 실제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추적함으로써 북한의 발전전략을 해명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이들은 북한발전전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함께 대부분 북한발전전략의 정치경제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최근의

45) Kieth Griffin, *Alternativ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in association with the OECD Development Center, 1989), pp. 194-225.

46) Ellen Brune, Jacques Hersh,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6);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북한》(서울: 지평, 1988).

47) Aidan Foster-Carter, "North Korea: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A Critical Appraisal," in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an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48) Gordon White, "North Korean Juche: The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in Manfred Bienefeld and Martin Godfrey eds., *The Struggle for Development: National Strategi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Chiches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Jon Halliday, "The North Korean Enigma," in Gordon White, Robin Murray, Christine White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3).

위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발전전략이 1970년대 이후를 지나면서 어떻게 정치사회적 체제원리로 격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이것이 결국 지금의 발전전략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최근 들어 국내학자에 의한 북한발전전략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병로<sup>49)</sup>는 남한과 북한의 발전과정을 제3세계에서의 자본주의적 방식과 사회주의적 방식의 경로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는 바, 북한의 발전전략을 남한의 '모방' (imitation)의 발전전략과 대비시켜 이른바 '주체' (juche)의 발전전략으로 설명하면서 '내부지향적' (inward-orientation) 발전정책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사회주의를 발전전략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한 의미 있는 연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차원과의 연관성이 미약하고 아울러 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의 계기를 규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보인다. 북한의 '자립정책' 을 이른바 '주체사상' 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과의 연관하에서 분석한 구분학의 연구는<sup>50)</sup> 경제발전과 정치와의 관계를 논의의 초점에 놓았다는 점에서 돋보이지만 자립노선의 경제적 성과와 전개과정만을 평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체제특성으로서의 발전전략의 설명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박후건<sup>51)</sup>은 북한의 농업발전을 '주체의 발전전략' 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으나 이 역시 발전전략 전반에 관한 학술적,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고 1950년대 이후의 농업발전의 추진과 성과만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북한의 발전전략을 국가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국내의 연구로는 이항동의 것을 들 수 있다.<sup>52)</sup> 그는 발전전략의 형성과 수행에서 국가능력을 결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이를 다시 국가자율성과 제도적 구조로 설명하는 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북한발전전략을 각각 중공업우선전략, 국방경제 병진전략, 경제합리화 발

49) Byoung-Lo Philo Kim, *Two Koreas In Development*(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2).

50) Bon-Hak Koo, *The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51) Phillip Hookon Park,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elf-Reliance(juche)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1997).

52) 이항동, 《남북한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Neo-Weberian적 국가론을 중심으로》(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항동, 《북한의 정치와 발전전략》(서울: 대왕사, 1994).

전전략, 경제개방화 발전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북한발전전략의 정치경제적 함의를 분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국가정책 수준의 나열에만 그친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사회주의 경제를 개발경제학적, 경제발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 양문수의 연구는<sup>53)</sup> 후진국의 '따라잡기' 전략으로서의 경제건설을 전제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전략 패턴에 적용시켜 북한경제를 실물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지나치게 경제중심적 분석에 머물고 있고 자본주의 경제이론으로 북한경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의 정치적 함의를 놓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북한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는 북한사회주의를 발전전략적 접근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전략의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전과정을, 그리고 북한사회주의의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 2) 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

앞에서 우리는 발전전략적 접근법이 사회주의체제의 역사와 현실을 연결하는 일관된 설명틀임과 동시에 개별 사회주의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해내는 관점이며 나아가 정치와 경제와 이데올로기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주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북한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것도 발전전략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북한의 체제특성과 위기의 근원을 발전전략의 내용에서 구하고 아울러 향후 체제변화의 가능성과 전망도 발전전략의 변화와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발전전략의 채택과 실천과정이 북한사회주의의 체제특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었고 마찬가지로 발전전략의 변화와 수정의 모색과정이 북한 사회주의의 변화과정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른바 북한의 '특수성'은 북한식 발전전략에서 배태된 특성이다. 북한사회주의의 특수성이 그들의 발전전략을 산출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발전전략의

53) 양문수, 《북한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서울: 기아경제연구소, 1998); 梁文秀, “北朝鮮の工業化の구조—經濟開發論的視點による検討,” 《アジア經濟》, 第38卷 第12號(1997年 12月).

형성과 발전과정이 북한의 특성을 결과해낸 것이다. 즉 역사적 제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된 그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오히려 지금의 북한의 특성을 설명해내고 아울러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게 타당한 작업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사회주의의 형성과정과 체제특성 그리고 변화전망을 발전전략적 접근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그간의 구체적 사실들이(facts) 발전전략적 접근에 의해 하나의 일관된 설명틀로 재구성될(reconstruct) 수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북한에서 체계적인 발전전략 형성된 시기는 1950년대였다. 그 이전시기는 공화국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역사적 곡절을 겪었고 북한 스스로도 사회주의적 지향은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민주개혁이후 인민민주주의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회주의의 공식적 단계에 돌입하지 않은 것이다.<sup>54)</sup> 그러나 1950년대 한국전쟁이후의 시기는 이제 북한에게 북한식 발전전략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위기(crisis)로 다가왔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와 피폐한 인민생활은 북한에게 최대의 대내적 위기였고 아울러 1950년대 중반부터 불거져 나온 사회주의 진영의 혼란과 동요 그리고 중소간의 사회주의건설노선에 대한 분쟁 등은 유례없는 대외적 위기를 조성했다.

이같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북한은 전후피해를 복구하고 몰락한 인민경제를 회복해야 했으며 동시에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해야 했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지향과 현실적 근대화라는 목표의 이중성을 해결해야 하는 발전정권(regime of development)의<sup>55)</sup> 발전전략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1950년대에 북한은 발전전략을 형성하게 되는 바, 가장 우선적으로 産業化(industrialization)를 위한 경제건설노선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합의된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경제적 발전전략을 둘러싼 대립은 치

54) 실제로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와(1946년 8월) 2차 당대회(1948년 3월)까지도 당규약에는 사회주의나 맑스레닌주의라는 언급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로 하였을 것이나 당시의 인민민주주의적 과제수행을 위해 노동당은 광범한 통일전선의 형성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나 맑스레닌주의를 천명할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규약에 맑스레닌주의가 공식천명된 것은 사회주의적 개조가 한창이었던 3차 당대회(1956년)에 와서였다.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87쪽, 270-271쪽, 525쪽 참조.



열할 수밖에 없었다. 낙후한 식민지 농업국가를 발달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만들기 위한 경제발전전략은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대두되었는 바, 축적의 방식을 둘러싸고 중공업우선노선과 경공업우선노선이 대립하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개조를 놓고 급속한 농업협동화노선과 생산력발전을 앞세운 완만한 속도의 협동화노선이 갈등하였다.<sup>56)</sup> 또한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소련중심의 사회주의국제분업체제 즉 코메콘을 놓고 소련과 심각한 대결을 벌였다.

이같은 대립과정을 거치면서 1950년대 북한이 채택한 경제에서의 발전전략은 축적방식에서의 중공업우선노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문제에서 생산력 발전에 앞선 급속한 농업협동화노선, 그리고 대외경제관계에서 사회주의국제분업체제의 거부와 자력갱생원칙의 확립으로 결과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자립적민족경제노선'으로 정식화되었고 이후 북한사회의 '체제원리'로 자리매김되었다.

발전전략의 정치적 차원은 발전을 위한 사회적 組織化(organization) 원리로서 정치체제에 투영되어 나타났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경제노선의 대립과 갈등이 연관되면서 첨예한 투쟁이 동반되었다. 특히 개인숭배와 당내민주주의 문제로 표면화된 1956년의 8월종파사건과 이후 반종파투쟁은 당시 북한의 정치적 영역에서의 발전전략 수립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57)</sup>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은 정치적으로

55) 이같은 '발전정권'의 성격은 북한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통과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산력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의 김일성 언급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혁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이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 우리가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한 것만큼 자본주의 하에서 마땅히 해결하여야 할 생산력발전의 과업을 오늘 우리 사회주의시대에 와서 실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1967.5) 《김일성저작집 2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68쪽.

56) 당시 갈등과 논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김성보,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 東京大博士學位論文, 1995), 四章;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2장 참조.

57) 8월종파사건에 대한 내용은 이종석, "김일성의 '반종파투쟁'과 북한권력구조의 형성," 《역사비평》, 1989년 가을호; Chong-Sik Lee,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김성환 옮김, 《조선노동당 역사》(서울: 이론과 실천, 1991); Koon-Woo Nam, *The North Korean Communist Leadership, 1945-1965*(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4); 안드레이 란

이른바 '유일적 지도체계'<sup>58)</sup>라는 단일한 정치구조를 만들어갔고 이는 후일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전사회에 대한 '당의 일원적 지배'와 맞물리면서 수령제라는 북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배태하는 역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 수령제가 지금 북한의 주요한 '체제원리' 중 하나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sup>59)</sup>

발전전략의 이데올로기적 차원 역시 사회주의건설과 근대화를 위한 대중동원의 사상적 正當化(legitimation) 기제로서 북한의 독특한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채워왔다. 경제노선의 갈등과 정치적 권력투쟁에 맞물리면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도 북한은 1950년대 나름의 발전전략을 형성해 갔는 바, 사상에서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는 이른바 '주체의 확립'이 반종파투쟁을 거치면서 강조되었고 이는 이후 중소분쟁의 대외적 국면에서는 '자주노선'의 정립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를 지나면서 조선혁명의 사상으로서 이른바 '주

코프, 《북한현대정치사》(서울: 오름, 1995); 백준기, "1950년대 북한의 권력갈등의 배경과 소련,"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서울: 역사비평사, 1998) 참조.

- 58) 여기서 유일적 지도체계는 '집단지도체제 대신 김일성 중심의 단일권력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당내 어떤 반대나 이견도 종파라는 이름으로 봉쇄된 정치체제'를 뜻하는 것으로서 수령제로 가기 이전 단계의 단일한 권력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른바 '유일적 지도체계'가 '수령제'로 발전하는 데는 거쳐야 할 것이 있었다. 즉 사회와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일원적 지도체계, 생산현장과 생산자 대중까지 직접장악하는 경제에서의 단일지도시스템, 전체 대중에 대한 사회문화적 동의확보 등 '유일적 지도체계의 전사회적 확산' 과정이 그것이다.
- 59) 수령제에 대한 기존의 개념정의는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중앙일보사, 1994, 20쪽) '당국가 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인격화된 지배가 관철되는 권력형태'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3쪽) '수령을 중심으로 전체사회가 전일적 틀로 편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체계까지 갖춘 지도체계' (이중석,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995, 16쪽) '국가사회주의의 기초 위에 2차적으로 형성된 구조로서 김일성이 유격대사령관이고 전국민이 유격대원인 유격대국가'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 1993년 10월호, 271쪽) '수령, 당, 대중의 일심동체' (김광웅,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3쪽) 등이 있는 바, 이들 개념규정들은 각각 후계자론, 인격화된 연줄망,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체계, 유격대 국가, 유격체적 국가체제 등에 주목함으로써 수령제의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본 논문은 수령제의 형성을 개인이지의 결과, 사회문화적 이유, 대외적 조건의 영향, 경제적 위기의 산물이라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북한발전전략의 산물 즉 1950년대 형성된 북한 발전전략이 1960년대를 거치면서 체제원리로 전화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사상'이 강조되었고 이 역시 북한사회의 핵심적 '체제원리'임은 물론이다.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수반하면서 진행된 1950년대 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정은 경제노선과 정치체제,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결국 자립적민족경제노선, 수령제, 주체사상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체제원리' (system principles)를 만들어냈다. 발전전략의 형성과정이 결국 북한사회주의의 체제특성을 결과해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발전전략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체사상의 틀 속에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수령제가 사상적으로 결합됨으로써 견고한 '제도' (institution)로 자리잡았고 그 체제 규정력은 극대화되었다. 이는 1990년대 위기상황에서도 그대로였다.

북한의 발전전략은 이제 1990년대에 들어 또 한번의 위기가 도래함으로써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내적으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었고 대외적으로도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역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이 다가왔다. 새롭게 당면한 위기속에서 북한은 발전전략의 변화를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구조화된 제도로서의 발전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199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은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우선 축적방식에서 기존의 중공업우선노선과 달리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가 강조되었고 생산관계에서도 장마당과 암시장 등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경제운용시스템에서도 '새로운 분조관리제' 등 물질적 자극을 통한 생산력 강조가 두드러졌다. 마찬가지로 대외경제관계에서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시작으로 획기적인 개방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분명 기존 자립적민족경제노선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의 기미말고도 이를 거부하는 기존 발전전략의 온존유지도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전히 중공업우선의 기존노선은 견지되고 있고 협동농장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진선봉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제발로 걸어간다'는 자력갱생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포기되지 않고 있다.<sup>60)</sup>

정치적으로도 북한발전전략의 결과물인 수령제도는 1990년대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수령제의 이론적 근거를 마

60) 기존의 경제노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헌법개정 직후 1998년 9월 17일자 로동신문과 근로자에 동시게재된 공동논설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련한 북한은 1990년대 후계체제를 위한 제반 정치적 과정을 거쳐 급기야 1994년 수령사망이후의 역사적 시점에서 권력승계의 원만한 성공을 통해 수령체제를 그대로 유지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황장엽으로 대표되는 당내 정치적 갈등이 존재했으나 그것은 미미했고 또한 실패했다.<sup>61)</sup> 크게는 정치적 발전전략으로서 수령체가 변화되기보다는 유지존존된 것이다.<sup>62)</sup>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1990년대 북한은 기존의 전략을 고수유지하고 있다. 1950년대에 '발전의 이데올로기'로 대두된 주체사상이 이미 1980년대에는 '순수이데올로기'로<sup>63)</sup> 추상화, 공고화되었고 이는 다시 1990년대에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61) 북한내부 문헌과 황장엽의 글 등을 통해 당시의 갈등을 분석한 것으로는 김근식, "황장엽 사건, 90년대 종파사건의 징후," 《전국연합통신》, 117호, 1997년 3.10.; 한호석, "황장엽 사건에 대한 분석적 이해," 《통일논의》, 16호, 민주평화통일연구소, 1997년 3월; 한호석, "황장엽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통일논의》, 22호, 민주평화통일연구소, 1998년 7월; 김근식, 《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4장 3절 참조.

62) 최근의 '軍중시' '군사국가화'의 모습과 개정헌법에서의 정치구조 변화를 두고 기존 수령체 정치체제와 당국가체제의 변화를 추측하는 논의가 있지만 군의 강조는 수령사망 이후 위기관리를 위한 과도기 현상이며 개정헌법의 내용 역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내각 총리로의 권력분산이 아니라 단순한 '기능 위임'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동만, "북한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한국정치연구회, 《정치비평》, 5호, 1998년 가을/겨울호 참조. 김일성시대와의 비교, 타공산주의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여전히 김정일체제는 정치적으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Koh Byung Chul,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Jae Kyu Park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9), pp. 29-57 참조.

63) 서만에 의하면 순수이데올로기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일관되고 의식적인 세계관을 제공하는 사고체계(set of ideas designed to give the individual a unified and conscious world view)로 정의되며 실천이데올로기는 조직 혹은 개인에게 행동의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사고체계(set of ideas designed to give the individual rational instruments for action)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서만은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순수이데올로기는 추상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맑스레닌주의이며 실천이데올로기는 실천의 원칙과 방법을 제공해주는 모택동사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진리가 중국의 혁명과 건설의 실천경험을 통해 실천이데올로기로서 모택동사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8-24 참조. 이에 입각한다면 195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 형성 과정에서 결과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북한의 경우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발전을 위한 실천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의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를 대체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화기제로서 '우리식 사회주의론' 과 '붉은기철학' 으로 변용되어 나타났다. 당면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사상적 정당화 담론으로서 등장한 이들 변용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주체사상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는 것이었고 발전전략으로서의 주체사상은 아직도 북한사회의 막강한 체제원리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위기상황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북한은 이미 형성된 기존 발전전략의 체제원리화와 이로 인한 제도적 힘으로 인해 변화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제도적 제약'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1990년대 북한의 발전전략 변화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일반적 위기상황이 제공하는 변화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발전전략의 변화는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오히려 북한의 향후 변화전망은 결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주장이나 북한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라는 주관적 의지의 피력이 아니라 북한 역시 하나의 실존하는 저개발 국가의 발전정권(regime of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 5. 결론에 대신하여: 남겨진 과제

본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의 체제적 특성을 설명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이른바 '발전전략적 접근'의 설명틀을 제시하였다. 즉 저발전국가에서의 신속한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고 발전 그리고 변화과정을 발전전략의 형성고 변화, 변화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게 분석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이것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유토피아적 지향'과 사회경제적 근대화라는 '현실적 발전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통해 개별 사회주의 국가가 각자의 조건과 배경에서 여하히 자신들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발전, 변화시켜가게를 추적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사회주의 북한의 체제형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작업 역시 이같은

---

한 최고의 추상적 진리로서 격상되어 이제 구체적 실천과 방법을 제공하는 실천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키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맥락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이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발전전략의 내용은 단순히 산업화노선으로서의 경제발전전략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근대화로의 동원을 위한 사회조직 원리로서의 정치체제, 동원을 위한 정당화 기제로서의 이데올로기 내용까지를 동일하게 발전전략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이로써 발전전략적 접근은 사회주의체제의 정치와 경제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포괄하는 설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은 기존 북한연구의 한계로 지목되던 과거 중심의 역사서술과 현재 중심의 상황분석을 종합적으로 결합시켜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역사와 현실을 하나의 설명틀로 접목시키고 아울러 과거 북한연구가 정치, 경제 혹은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에만 한정되었던 연구영역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를 통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 발전전략적 접근이 갖는 나름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의 발전전략적 접근은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이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주의 북한의 일반성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동시에 구명하는 작업은 분명 현실사회주의의 비교교차 분석에 의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sup>64)</sup>

발전전략적 접근이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사회주의의 발전전략 연구를 토대로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형성과 변화과정을 이른바 발전전략적 접근이라는 동일한 설명틀을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저발전국가의 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를 채택했으며 이같은 관점에서 개별 사회주의 국가가 여하히 형성되고 발전, 변화되었는가를 교차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발전전략적 접근의 설명력과 분석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북한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발전전략적 접근은 소련식 모델과 동구권 모델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모델들을 비교하여 사회주의 발전전략의 변화모형을 객관적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주객관적 조건과 특징 등을 분석함으

64) 북한연구를 '비교사회주의'의 과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연구들도 최근에는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Hyuk-Bum Kwon, *The Politics of Transition to Socialism in Cuba and North Korea*(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90).

로써 북한발전전략의 변화모델 역시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을 확보해야 한다. 비교의 방법을 통해 북한사회주의의 향후 변화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발전전략적 접근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광용(1995),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근식(1999), 《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보(1997),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서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철(1996),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수령제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기원》, 서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디히터 쟁하스(Dieter Senghass)(1990), 한상진 유평무 옮김,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 류길재(1995), 《북한의 국가건설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중(1994), 《북한적 현상의 연구》, 서울: 연구사.
- 양문수(1998), 《북한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 서울: 기아경제연구소.
- 이종석(1995),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이항동(1991), 《남북한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비교론적 연구: Neo-Weberian적 국가론을 중심으로》, 서울: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항동(1994), 《북한의 정치와 발전전략》, 서울: 대왕사.
- 최성(1994), 《수령체제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의각(1992),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
- 徐東晚(1995),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東京: 東京大博士學位論文.
- 梁文秀(1997), “北朝鮮の工業化の구조-經濟開發論的視點による検討,” 《アジア經濟》, 第38卷 第12號(12月).
- 鐸木昌之(1992), 《北朝鮮: 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東京: 東京大出版會; 유영구 옮김(1994),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 和田春樹(1993),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10月號.
- Brune, Ellen, Jacques Hersh(1976), *Socialist Korea: A Case Study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김해성 옮김(1988), 《사회주의북한》, 서울: 지평.
- Brus, Włodzimierz, and Kazimierz Laski(1989), *From Marx to the Market: Socialism in Search of an Economic System*, Oxford: Clarendon Press.
- Choi, Soo-young(1991), *Foreign Trade of North Korea, 1946-1988: Structure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ersity.

- Chung, Joseph Sang-hoon(1974),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Cumings, Bruce(1982/1983),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 부르크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편(1988), 《한국현대사 연구1》, 서울: 이성과 현실사.
- Cumings, Bruce(1993),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in Hagen Koo,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llman, Michael(1989), *Socialist Planning*,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eld, Mark, ed.(1976),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 London: Sage.
- Foster-Carter, Aidan(1978), "North Korea: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A Critical Appraisal," in Gavan McCormack and Mark Seldan eds., *Korea, North and South: The Deepening Crisi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Friedrich, Carl, and Zbigniew Brzezinski(1965),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nd ed..
- Griffin, Kieth(1989), *Alternative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Basingstoke and London: Macmillan in association with the OECD Development Center.
- Halliday, Jon(1983), "The North Korean Enigma," in Gordon White, Robin Murray, Christine White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 Horowitz, Irving(1982), *Beyond Empire and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wang, Eui-gak(1993), *The Korean Economies: A Comparison of North and Sou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on, Kenneth, and Charles Wilber(1981), "Socialism and Development: Editors' Introduction," *World Development*, Vol. 9, No. 9-10.
- Johnson, Chalmers, ed.(1970),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witt, Kenneth(1972),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utsky, John(1967), "Commu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Vol. 26, No. 1 (March).
- Kautsky, John(1968), *Communism and the Politics of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Kautsky, John(1973), "Comparative Communism versus Comparative Politic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6, No. 1-2 (Spring-Summer).
- Kim, Byoung-Lo Philo(1992), *Two Koreas In Developmen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Kim, Il Pyong(1975),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 New York: Praeger; 김일평(1987),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 Kim, Samuel S.(1980), "Research on Korean Communism: Promise versus Performance," *World Politics*, Vol. 32, No. 2 (January).
- Koh, Byung Chul(1999),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under Kim Jong Il: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Jae Kyu Park ed.,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 Koo, Bon-Hak(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 Kornai, Janos(1992),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won, Hyuk-Bum(1990), *The Politics of Transition to Socialism in Cuba and North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Lowenthal, Richard(1970),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cCormack, Gavan(1993),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 (March/April).
- Nee, Victor, and David Stark(1989), "Toward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State Socialism," in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ik, Hak Soon(1993),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ark, Phillip Hookon(1997), *The Development Strategy of Self-Reliance(Juche) and Rural Development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Rigby, T.(1982), "Introduction: Political Legitimacy, Weber and Communist Mono-Organizational Systems," in T. Rigby and Ferenc Feher, eds., *Political Legitimation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 Scalapino, Robert, and Chong-Sik Lee(1972), *Communism in Korea: The Movemen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홍구 옮김(1986, 1987),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2, 3》, 서울: 돌베개.
- Schurmann, Franz(1968),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enghass, Dieter(1981), "Socialism in Histor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 *Economics*,

Tubingen, Vol, 23.

Suh, Dae-Sook, Kim Il Sung(1988),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Tucker, Robert(1961),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 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5, No. 2 (June).

White, Gordon(1982), "North Korean Juche: The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in Manfred Bienefeld and Martin Godfrey eds., *The Struggle for Development: National Strategie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Chiches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White, Gordon(1984), "Developmental States and Socialist Industrialization in the Third World," in Raphael Kaplinsky ed., *Third world Industrialization in the 1980s: Open Economies in a Closed World*, London: Frank Cass.

White, Gordon(1993),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An Overview," in Gordon White, Robin Murray and Christine White, eds.,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White, Gordon, Robin Murray, and Christine White, eds.(1993), *Revolutionary Socialist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White, Stephen, John Gardner, George Schopflin, and Tony Saich(1990), *Communist and Postcommunist Political Systems: An Introduction*, 3rd ed., London: Macmillan.

Wilber, Charles(1969), *The Soviet Model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A Perspective on North Korean Socialism: Approach of Development Strategy

Kim, Keun-Sik\*

It will be worth to note that we need a consistent perspective in North Korean study with linking historical approach and policy-oriented explanatory analysis. In this context, this paper used an explanatory method, the “approach of development strategy,” to explain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alism and to prospect its future changes. In this method, socialism is regarded as a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hanging process of a social system is analyzed with a regard to the dynamics of development strategy. It is suggested that the adoptive and practical process of development strategy be the process of forming the system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socialism, and the process of probing changes and revisions of the development strategy be the changing process of North Korean socialism. This approach does not restrict the content of development strategy to only the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The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for the Asia-Pacific Region, Research Fellow

Research Area: North Korean Politics

Major Publications: “On the Change of North Korean Socialism: Focusing on the “Changeability” and the “Change-Constraint” *North Korean Studies Review*,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ol. 2, No. 1, 1999.

“Change-Limitation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in 1990s,” *The Reunified Korea Economy*, Hyundai Research Institute, No. 54(June, 1999).

“Prospect of Civil Society in North Korea” *Social Science and Policy Research*, Vol. 16, No. 3,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E-mail: kimosung@hanmail.net

industrialization. Rather, this study includes the political system as the organization principle for the mobilization and the substance of ideology as the justification mechanism for the mobilization in content of development strategy.

This paper proposes that 1950s after Korean war was the forming period of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A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fact that this period was designated as “the system crisis” because of both internal economic emergency and external confusion of socialist bloc. The results reveal that the forming of development strategy in this critical situation caused controversy and conflic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mainly the polic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at the sphere of confrontation was spread to the politics and the ideology as well as the economy.

The development strategy of North Korea was developed to the system principles of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Policy’ in economy, ‘Suryung system’ (monolithic system) in politics, and ‘Juche Thought’ in ideology. They have functioned as the core of principles which regulate and rule the North Korean socialism. In this course, North Korea faced another critical situation in 1990s caused by deepening of economic crisis and collapse of socialist bloc. However, North Korea in 1990s didn’t abolish system principles nor change the established development strategy fundamentally.

Using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constraint’ that the existing development strategy is transformed into system principles and functions as the structural force against change, this paper evidently showed that though the crisis in 1990s offered the opportunity of change, the essential change in the development strategy was restricted for a while as the existing development strategy is fixed as an institutionally structured force.